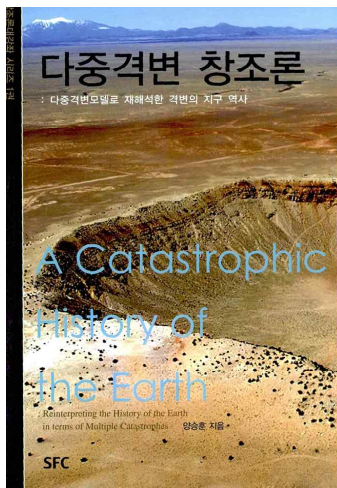


다중격변 창조론

Catastrophism에서 Neo-Catastrophism으로

☉ 최태연



양승훈 저, 서울: SFC출판부, 2011

다중격변 창조론의 자리매김

양승훈 교수의 새 책 『다중격변 창조론』은 양 교수가 단일격변 창조론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다중격변 창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적 여행보고서이다. 이론적으로 이 책은 한국 창조과학운동의 단일격변설처럼 전지구적인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면서도 격변의 다양성과 다중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단일격변설을 수정해 준다. 이 변화는 바른 성경해석의 원리가 무엇인가와 지질학의 증거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단일격변설과의 시각차에서 왔다. 양 교수는 성경해석에서 유기적 영감설에 근거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창세기 해석을 수용하고 지질학에서는 새로운 격변이론인 신격변설을 받아들였다. 단일격변설의 토양 위에서 복음주의 성경해석과 신격변설(neo-catastrophism)이 결합되어 낳은 ‘이종강세(heterosis)’라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 지질학 연구의 성과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이 책이 창조과학 못지않게 대중적으로 호소력있는 이론구성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양 교수가 창조과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수행한 대중강의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한데 있을 것이다.¹⁾ 이 책에서 양 교수는 처음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네 가지 입장을 유형적으로 열거하고 자신의 선택이유를 알기 쉽게 밝힌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는 크게 나누어 균일론과 격변

1) 그동안 출판된 양교수의 창조론 관련 책으로는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서울: CUP, 1991 초판; 1995 개정판; 1996 개정증보판); 양승훈, 『창조와 격변』(서울: 예명, 2006 초판; 2010 개정판); 양승훈 원저, 장슬기·이화진·서진·진형근 편저, 『창조론 탐구학습』(서울: 좋은씨앗, 2010)이 있다.

론이 있는데, 양교수는 균일론을 (진화론적)동일과정설과 (창조론적)국부홍수설로 구분하고 격변론을 단일격변설과 다중격변설로 구분한다. 양 교수가 네 입장 중에서 다중격변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적절한 성경해석의 결과 전지구적 홍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질학적인 증거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번의 격변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어제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기독교학문적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다. 그는 물리교육학도로 출발하여 20여년간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창조과학과 기독교세계관을 연구했고 1990년에는 과학사와 신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의 학문은 물리학과 과학사와 신학이 결합된 학제간 연구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그는 수백 명의 한국창조과학자 가운데 독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물을 저서로 제시한 유일한 인물이다.

다중격변 창조론의 형성과정

이 책의 서문에서 양 교수는 단일격변설을 떠나 다중격변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주요멤버로서 지구의 연대를 6000년으로 보는 젊은지구 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과 그와 일치하지 않는 과학적인 증거사이에서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그는 2003년경 19세기 프랑스의 고생물학자

퀴비에(George Cuvier)가 1829년에 출간한 『지면의 격변들에 관한 강의』 라는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다중격변의 아이디어에 접했다. 양 교수는 지층들의 부정합과 지층마다 화석의 종류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다중격변설을 주장한 퀴비에를 통해 단일격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양 교수는 1978년 UC버클리 알바레스 교수팀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K-T지층이 소행성의 충돌 결과로 생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전지구의 350군데서 발견되는 이 지층은 중생대 쥐라기 말에 멕시코 유카탄반도 칩술루에 떨어진 직경 10km의 소행성으로부터 낙하된 물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운석에서 발견되는 이리듐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충돌의 결과 대기는 먼지로 뒤덮히고 여러 곳에서 화산이 분출하여 지구 전역에서 공룡을 포함한 중생대의 생물 대부분이 멸종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다중격변설을 지지해 주는 연구는 시카고대학의 지질학자 브레츠(J. H. Bretz)에 의해 1920년대부터 제시되었던 빙하홍수 이론이다. 브레츠는 몬태나 주의 거대한 빙하홍수였던 미졸라 호수가 여러 번 일으킨 홍수에 의해 용암지대의 수로와 현무암 자갈퇴적층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1965년 이후 지질학계의 인정을 받는다. 양 교수는 퀴비에로부터 시작하여 운석충돌, 화산폭발, 빙하홍수 등으로 지구 역사에 수차례의 대격변이 있었다는 신격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다중격변 창조론>



양 교수는 퀴비에로부터 시작하여 운석충돌, 화산폭발, 빙하홍수 등으로 지구 역사에 수차례의 대격변이 있었다는 신격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다중격변 창조론>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다중격변 창조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두 가지 기본가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는 신학적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격변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과학적 가정이다. 이 두 가정은 서로 다른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 어느 가정을 우위에 놓을지의 문제가 등장한다.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이 가정들을 최대한의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하나의 가정만을 중시하는 양쪽 진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앞으로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서평을 마치면서 그러한 과제 몇 가지를 언급한다.

1) 전지구적 노아홍수의 증거

양 교수는 창세기 7장 11절과 19절, 8장 9절에 근거하여 노아 시대의 전지구적 홍수의 실재를 문자적으로 긍정한다. 그는 이 홍수가 신생대 제4기 홍적세(180만년~1만년전)에 일어났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홍적세의 퇴적층이 어떻게 노아홍수라는 일회적인 대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는 이 책의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가 지질학적으로 여러 차례의 국부홍수에 의해 형성된 지층과 화석증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모호해 진다. 전지구적 홍수가 지질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입증되는지, 아닌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 같다.

2) 지질주상도의 타당성

양 교수는 책의 206쪽에서 운석공의 연대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지질주상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다중격변 창조론도 이 지질주상도의 시대구분과 연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

반적으로 지질주상도는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만들어졌다고 본다. 양 교수가 동일과정설을 부정하고 격변설을 주장하면서 이 도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양 진영으로부터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받게 된다. 양 교수는 격변론의 입장에서 지질주상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 같다.

3) 신중한 성경해석의 제시

양 교수는 성경을 해석할 때 피해야 할 태도를 다음 네 가지로 본다. 첫째, 성경의 용어를 오늘날의 과학용어와 같은 의미로 본다. 둘째, 성경 기록자의 사고나 문화를 오늘날과 동일시한다. 셋째, 성경의 최초 독자와 오늘날의 독자가 처한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무시한다. 넷째, 성경이 과학적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고 가정한다. 양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복음주의 성경해석학의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이 해석의 일반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동식물의 죽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벌로서 “흙으로 돌아갈 것(창 3:19)”과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때문에 타락 이

전에 인간의 죽음이 있다고 보는 해석은 소수입장이다. 반면에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등장 이전에 여러 번의 격변이 있었고 그 때마다 동식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 어떤 원칙을 우선시할 것인가? 과학적 증거 때문에 성경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성경해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신격변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에 이론적 틀과 증거를 제공한 신격변설(neo-catastrophism)은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질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에서 얻어진 관점을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이 이론은 더 발전될 여지가 많은 이론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직 취약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 자체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격변설의 타당성이 높아질수록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의 타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태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및 Th.M. Cand.,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Paul Ricoeur의 해석학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며 한가목교회 목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운동 교육과정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철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신격변설에 대한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D. V. Ager, *The New Catastrophism: The Importance of the Rare Event in Geologic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ichard J. Huggett, *Catastrophism: Asteroids, Comets and Other Dynamic Events in Earth History* (Verso; Revised edition, 1998).